



‘농민이 애국자요 국가의 초석’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상호금융 3조원시대를 화려하게 개막했다. 사진은 전주농협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상호금융 3조원 시대 열다

전주농협, 2017년 4월 이후 4년동안 1조원 순증... 농사연금 지급 주효 결과

‘농민이 애국자요 국가의 초석’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상호금융 3조원시대를 화려하게 개막했다. 전주농협은 창립 35년만인 2007년 9월 예수금 6천억원, 대출금 4,000억원으로 전북농협 최초 상호금융 1조원 시대를 열었고, 10년후인 2017년 4월 예수금 1조1,000억원, 대출금 9,000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한 후 올 2월에 상호금융 3조원 시대를 맞았다. 이 같은 결과는 50년 전주농협 역사에서 단 4년만에 지난 40여년 성장치

(2조원)의 50%인 1조원을 순증하는 초고속 성장을 기록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전주농협의 이러한 성과는 임인규 조합장이 전국 농협 최초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농사연금’을 지급한 결과이기도 하다. 농사연금 지급은 조합원들의 전주농협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이들이 예금·보험·대출 등을 적극 이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주농협은 2020년 하반기에 상호금융예수금 1조5천억 원을 달성했으며 조합간에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

고 있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전주농협 창립 이후 상호금융이 2조원까지 달성하는 데 45년이 걸렸고 최근 들어 단 4년만에 그 절반인 1조원이 순증 되었는데, 이는 맑은 자리에서 열심히 임해준 직원들 덕분”이라며 “특히 상호금융 3조원 시대 도래는 제가 취임 후 전국 농협 최초로 ‘농사연금’을 지급한 것이 주요했던 결과로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지난해까지 누적 운용 수익금 440조원’

국민연금, 글로벌 팬데믹 상황 속 수익률 9.7% · 수익금 72조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기금운용본부는 2020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직전년도 말 대비 97조 1천억 원 증가한 833조7,000억원에 이르렀으며,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부터의 연평균 누적 운용수익률(잠정)은 6.27%, 누적 운용 수익금은 43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해 연간 기금 전체 수익률(잠정)은 9.70%, 수익금은 72조1,000억원을 나타냈고, 이는 국내 상장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금융부문에서만 9.72%에 이르는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을 기록했으며, 국내주식을 비롯해 해외주식, 국내의 채권 등의 각 자산군 모두

벤치마크(BM: Benchmark) 수익률을 초과하는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금운용본부가 신속하게 실시한 전술적 자산배분 조정은, 주요 국가의 대규모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하반기 상승 전환하게 되면서 기금 전체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 채권에서도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자산 평가이익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벤치마크 변경 등에 발맞춘 섹터·종목 선택 효과에 힘입어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다. 다만 해외투자 자산의 경우 원 달러 환율 하락으로 외화 환산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원화를 기준으로 표시되는 운용 수익률은 외화 표시 수익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대체투자의 경우, 코로나19 여

파에 따른 지역·국가 간 이동제한 등으로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에도 해외에서 약 23조 원 규모의 신규 약정을 체결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APG(네덜란드 연기금), 알리안츠 등과 같은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와의 공동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투자 규모의 대형화, 신규 투자처 발굴, 세부전략·투자지역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대체투자는 해외부문에 외화환산손실이 반영되면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보였으나, 안정적인 이자 및 배당수익 실현과 보유자산의 가치상승을 통해 기금 전체 수익률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최종 성과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6월 말경 기금운용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우체국-효자시니어클럽 시니어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전주우체국(국장 김경일)은 25일 노인일자리에너지 전주효자시니어클럽(관장 최재훈)과 우정서비스 증진 및 시니어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체국의 신규사업인 사회서비스형 행정업무지원사업(우·행·시)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양기관 간 협업으로 시니어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공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일 전주우체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니어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훈 관장은 “6070백세사업, 고령자친화기업 우정 카페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현재도 20여명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우·행·시 또한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1월 전북수출 5억5687만 달러

전년대비 14.2% 증가

2021년 1월 전라북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한 5억5,687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출실적으로 올해 긍정적인 수출 전망을 기대하게 한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가 발표한 2021년 1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은 5억 5,687만 달러, 수입은 4억6,089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전년보다 증가한 수출 실적을 보였다. 동계품(\$4,653만, 127.4%), 합성수지(\$4,585만, 29.4%), 건설광산기계(\$4,505만, 20.6%), 농약및의약품(\$3,638만, 48.8%) 등 주력 수출품목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다만 주력 수출품목 중 최

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밀화학원료(\$4,693만, -27.0%)와 자동차(\$3,093만, -1.5%)는 전년보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1억 2,978만, 30.3%), 미국(\$9,293만, 14.1%), 일본(\$3,497만, 12.0%), 베트남(\$3,252만, 51.1%), 폴란드(\$2,391만, 149.5%) 등 5대 수출상대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또한 브라질(\$1,296만, 112.4%), 멕시코(\$984만, 61.1%) 등의 중남미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전북 수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수출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안전관리 철저, 경영체질 혁신”

박지현 신임 전기안전공사 사장 취임

한국전기안전공사 제17대 사장으로 박지현 前 부사장이 취임했다. 이는 공사 창립 이후 첫 내부 출신 임명 인사다. 신임 박지현 사장은 1954년생으로 전북 김제 출신으로 일광대 전기공학과를 나와 광운대에서 전자정보통신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 입사해 2015년 부사장으로 물러날 때까지 일선 지역본부는 물론, 안전정책처, 경영기획처 등

사업소 현장과 본사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임 시절 2002 월드컵 성공 개최 지원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퇴임 후에는 전력산업 진흥 유공으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박지현 사장은 25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철저한 안전관리 수행과 고객·현장중심 경영, 사업 환경 변화에 발맞춘 창조적 기술 혁신과 조직 역량 강화로 공사를 더욱 발전시켜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만 3년으로, 오는 2024년 2월 24일까지다. /김윤상 기자



허태용 농촌진흥청장은 25일 전북도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 파프리카시험장을 찾아 국내 육성 파프리카 품종 연구·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내 육성 파프리카 품종 개발현장 점검

허태용 농진청장, 전북농기원 파프리카시험장 방문

허태용 농촌진흥청장은 25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 파프리카시험장(이하, 파프리카시험장)을 찾아 국내 육성 파프리카 품종 연구·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청년농업인 귀농·창업 우수사례 현장인 김제의 딸기 수확 체험농장(농장명: 딸기코빨강고)을 방문해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지원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 파프리카시험장은 2010년 7월 신설된 이후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여름·겨울재배용 파프리카 6개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온실 환경 자료를 수집·분석해 최적의 재배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배연구와 농가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허 청장은 수입종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고품질 국산 종자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이러스에 강한 파프리카 품종 육성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협력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이어 2014년 청년농업인으로 귀농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딸기 수확 체험농장 대표를 만나 영농정착과정을 듣고, 신규 청년농업인과 젊은 귀농인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농장대표 김미정씨는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귀농 전부터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딸기재배와 체험농장 운영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귀농창업 준비했다. 김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청년농업인 100’에 선정(2017년)에 선정된 바 있으며, ‘제7회 전라북도농·축산인 및 귀농·귀촌인 성공사례’ 발표대회(2019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허 청장은 “신규 청년농업인과 젊은 귀농인 등의 영농정착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년농업인 교육, 기술·사업 지원 등을 추진 중인 관계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모아 청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체계(플랫폼)를 구축해 연내 시범운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팜스테이협 정기총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팜스테이협의회(회장 노재석)는 25일 지역본부에서 도내 팜스테이 마을 대표와 사무장, 농협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팜스테이협의회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팜스테이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 농촌을 찾는 도민에게 최고의 농촌 체험·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유지·조성하고 마을의 가치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발전시키며,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노재석 회장(고산 참포마을)은 “팜스테이를 찾는 방문객에게 잊을 수 없는 농업·농촌의 소중한 추억을 선사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주도하고, 농업·농촌의 가치와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팜스테이(Farm Stay)는 1999년 32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0년말 전국 296개(전북 20개)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농촌체험·관광마을의 대표적인 모범 모델로서 도민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소중함과 다양한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팜스테이마을 육성사업과 활성화는 농민의 농의소득증대로 연결되는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돼 팜스테이 마을에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산림청, 올 첫 나무심기 행사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4일 경남 거제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 첫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호 산림청장을 비롯해 경상남도, 거제시, 산림조합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붉가시나무 1천 그루를 심는 ‘첫 나무심기’를 하였으며, 4월 말까지 남산면적의 70배에 달하는 2만ha에 5천만여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올해 첫 나무심기 행사로, 탄소저장량과 흡수량이 가장 높은 붉가시나무를 심어 탄소 제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전국 첫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나무심기의 중요성과 숲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일=김기두 기자



전은,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5일 전북은행 본점 8층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2021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서한국 수석부행장, 김경진 부행장, 최강성 사회공헌부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김영성 사무처장, 최경용 회원홍보팀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 서한국 수석부행장은 “재난현장 긴급구호활동,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는데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김제 우수 청년창업농 찾아 현장의견 청취

허태용 농촌진흥청장이 25일 김제의 우수 농업현장을 방문했다. 지난해 힐링박스 김기현 청년농가를 방문한 데 이어 올해 행보는 두번째 방문이다. 이번엔 방문하는 김제 청년농부 딸기코빨강고 김미정 농가는 2014년도 귀농하여 1,650㎡(500평) 하우스딸기를 시작으로 2017년 ‘교육농장 품질향상사업’을 지원받아 농촌체험 교육농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1만명의 체험객을 유치한 바 있고, 최근에는 3,300㎡(1,000평)의 스마트팜 시설로 딸기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킨 선도적인 청년농부이다. 또한 2018년 농업마이스터대학교 딸기학과를 졸업하여 딸기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난해 1차 생산 매출액만 2억원을 올렸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체험농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1인 미디

어를 이용하여 1,000명의 구독자를 둔 딸기코팜 유튜브가 되어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허태용 농촌진흥청장의 김제 방문을 환영하며 김제의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부에 대한 관심과 농촌진흥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허태용 농촌진흥청장은 딸기코빨강고 김미정 농가처럼 선진 스마트팜 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자기만의 콘셉트를 개발하여 6차 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농부들이 안정적인 창업에 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 자문을 더욱 지원할 것이며, 고품화가 되어가는 농촌에 청년농부의 역할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며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청년농부가 되어주길 당부했다. /김제=곽재도 기자